

# 실업뉴스

The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News  
2019년 4월 24일 수요일 제774호



**온주** 정부 새 회계연도 예산 발표 다음날인 4월 12일 (금) 오전 9시부터 스카보로 소재 중국문화센터 (Chinese Cultural Centre)에서 빅 피델리 장관의 새 예산에 대한 특별 연설이 있다. 협회도 160여 명의 회원들이 대거 참석해 장내는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연설 직후 협회측은 새 정부의 편의점 업계에 대한 배려와 관심에 사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조성준 장관과 초청연사인 피델리 장관에게 꽃다발을 전했다.



[www.okba.net](http://www.okba.net) Publisher : Jae Gyun Shin / Publication Mail Agreement No : 41140510  
Return Undeliverable Canadian Address to :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175 The West Mall, Etobicoke, ON. M9C 1C2 Tel.(416)789-7891 Fax.(416)789-7834

곧 출시!

# 꿈은 최대한 크게!

판매 개시  
5월 11 일(토)

첫 추첨  
5월 14일(화)

LOTTO MAX

화요일 & 금요일 추첨  
1등상 최고 \$7천만

수열 변경: 1부터 50까지의 숫자 중 주 추첨 번호 7개와 보너스 번호 1개 추첨.



여전히  
**\$5**

## 근무 중 복권 쿠폰 사용 & 복권 구매 금지

최근 소매점 직원이 자신의 근무처에서 등록을 하고 OLG 쿠폰을 받은 다음 이 쿠폰을 복권으로 교환하는 위반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OLG는 등록을 하고 쿠폰을 복권으로 교환하는 소매업자를 감시합니다. 이런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소매업자는 7일간 영업 정지 처벌을 받습니다. 소매업자정책매뉴얼 (Retailer Policy Manual) 제2.3절 - 근무 중 복권 구매 금지를 참고하십시오.

여러분 매장에서 개인적인 OLG 복권 쿠폰을 복권으로 교환하지 마십시오.

제8.14절에 따른 위반 행위를 방지하려면 여러분 매장의 직원들에게 이 요건을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Play. Smart**  
Knowledge you can bet on.



**OLG** Ontario's  
Lottery & Gaming



##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 OKBA 회 장 : 신재균 (Jae Gyun Shin)  
OKBA 부회장 : 송명현 (Myeong-Hyeon Song)
- 사업개발팀 : 이주녕 (Brian Lee) brianjn1108@okba.net
- 홍보팀 : 실장 김광일 (Ted Kim) tongilisysj@yahoo.com
- 디자인팀 : 현미영 (Mimi Hyun) mimihyun@okba.net
- 회계팀 : 김세환 (Justin Kim) accounting@okba.net
- 본부협회 : Tel (416) 789 - 7891 / Fax (416) 789 - 7834

- 이사회 : 이사장 이두승 / 부이사장 신영하
- 감사위원회 : 감사 3인
- 분과위원회 : 장학 분과 / 회칙 분과/ 특별사업 분과  
상벌분과 / 선거관리 분과
- 지구협회 : < 광역 토론토 지구협의회 >  
Etobicoke 회장 이두승(416)895-1277  
Newmarket 회장 금동진(905)836-6429  
North York 회장 방성덕(416)221-7091  
Peel 회장 이수봉(905)813-1333  
Richmond Hill 회장 김대용(905)471-8079  
Scarborough 회장 엄종호(416)759-4503  
Toronto East 회장 김종범(416)363-9404  
Toronto West 회장 김재숙(416)975-0365  
Weston & York 회장 조용상(416)604-3116
- < 남서부 지구협의회 >  
Brant County 회장 김종학(519)756-0099  
Halton & Hamilton 회장 장은홍(905)679-4812  
London 회장 오세정(519)432-6672  
Niagara Falls 회장 김흥기(905)354-1313  
Waterloo 회장 최상겸(519)579-8130  
Windsor 회장 윤문성(519)326-1832
- < 동북부 지구 협의회 >  
Durham 회장 이현식(905)579-2500  
Huronian <공석>  
Kingston 회장 이강경(613)967-9998  
Owen Sound 회장 허창훈(519)323-4311  
Peterborough <공석>

Publication Mail Agreement No : 41140510  
Return Undeliverable Canadian Address to :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175 The West Mall, Etobicoke, ON. M9C 1C2  
Tel.(416)789-7891 Fax.(416)789-7834

# www.okba.net

온라인을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C O N T E N T S

- 04 - 05 / 4·12 조찬 예산설명회 성황
- 06 / AGCO, "편의점 CBD오일 판매 불법"
- 07 - 09 / 음료 신제품 러쉬와 편의점 대응 전략  
AGCO, "편의점 CBD오일 판매 불법"
- 10 / 빅 피델리 장관의 새 예산에 대한 특별 연설 주요 장면
- 11 / 회장 메시지 : 시작이 반이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 12 / Z세대, 푸드서비스 시장의 막강 잠재력 부상
- 13 - 14 / 추가수익 창출 위한 부대 서비스
- 15 / 독자 투고(김운배 회원) : 이제 철드나 보다
- 16 / 2019 Nestle Ice Cream Exclusivity Agreement
- 17 / DORECTORY
- 18 / 조합 베이핑 제품, 신용카드 2% 수수료 면제
- 19 - 22 / K.B.A. 협동조합 4월 스페셜

## 피델리 장관 “편의점 술판매 허용” 재확인 4·12 조찬 예산설명회 성황



▲ 4월 11일 의사당에서 새 예산안을 발표하는 빅 피델리 재무장관. 옆에 더그 포드 수상이 지켜보고 있고 뒤에 조성준 장관과 실비아 존스 치안교정부 장관이 배석하고 있다.

조성준 온주 보건복지부 장관의 주관하에 빅 피델리(Vic Fedeli) 온주 재무장관과 함께 한 조찬을 겸한 예산 설명회 행사가 지난 4월 12일(금) 열렸다. 행사장은 스카보로 소재 중국문화센터 (Chinese Cultural Centre) 였으며 이른 아침 시간인 8시부터 밀려들기 시작한 참석자들은 행사 시작인 9시 경 400명을 넘어서며 입주의 여지가 없었다. 행사 중간에 입장 한 사람까지 450여 명으로 추산된 성황이었다.

행사 타이틀은 『Scarborough Post Budget Breakfast With Vic Fedeli』.

전날인 4월 11일 온주 의사당에서 더그 포드 수상과 각료들, 그리고 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델리 장관은 새 회계 연도 예산을 발표했다. 예산 발표에 앞서 같은 날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예산 미리 보기' 성격인 버짓락업(budget lockup)행사가 있었으며 협회에도 초대장이와 심기호 조합 부이사장이 대표로 참가하는 특별 대우를 받았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 스카보로 지역구 의원이자 노인복지부의 수장인 조성준 장관이 스카보로 및 주변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지역주민 대상의 정활동 보고 차원에서 각별한 동료 사이인 재무장관을 초청했던 것이다.

물론 전날 피델리 장관이 새 예산의 특징과 의미를 설명했으나 편의점 업계 관심사인 주류판매 허용을 주무 장관 입을 통해 직접 재확인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던 자리여서 협회 회원들의 참여 열기는 정부 관련 행사에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160여 명이나 자리를 메웠다. 협회 회원이 아닌 여타 한인 단체 소속으로 온 한인들까지 합하면 한국계 참석자를 주

최측은 200여 명으로 집계했으니 전체 참석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가 한인인 셈.

조 장관의 소개로 단상에 오른 피델리 장관은 전날 발표에서도 앞자락에 깔았던 '자유당 때리기'로 시작했다. 이전 정권의 엄청난 재정 적자 누적 현상을 지적하며 '빚갚기'가 급선무여서 불요불급한 부분은 긴축하고 보강할 곳은 보장하는 효율성 중심의 예산임을 강조했다. 또한,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과거 자유당이 소홀히 했던 분기별 예산집행실적 보고서를 꼬박꼬박 작성할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수상과 본인의 연봉을 10% 깎겠다는 발언에서는 웃음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장관 연설 중 주목할 몇가지 내용을 정리해본다.

- 아동수당의 신축성있는 운영과 CARE제도 도입 (30만 저소득 아동 혜택)
- 의료 보건 현대화의 일환으로 침상수 증가 및 저소득 노인층 치과 혜택 확대
- 교육 시스템 개선(수학과 과학 수준 제고에 집중하고 교원수 운영의 효율화)
- 정부 대민 봉사의 온라인 서비스 강화

마지막으로 언급한 것이 편의점 주류판매 허용이었으며 장관의 앞선 발언에서도 여러차례 장내가 큰 박수로 출렁이며 분위기가 고조되던 끝에 편의점 대목에 이르러 우렁찬 박수와 환호소리까지 터져나오며 열기는 최고조에 이르렀다. 160여 명의 회원들, 나아가 1천여 회원들의 마음이 함께 한 희망찬 함성이었다.

9시 30분에 마친 재무 장관의 연설은 시종 흥분의 연속이었으며 주류연론과 동포 언론들의 취재열기도 뜨거웠다. 조성준 장관은 행사 직전 연단에 함께 도열해 있던 같은 스카보로 지역과 인근 지역의 동료 의원들을 일일이 소개했다. 재무장관은 조 장관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이 옆에서 나란히 지켜보는 가운데 수차례 박수를 받으며 자부심넘치는 목소리로 발표했고 연설을 마친 후 본부 협회 신재균 회장과 이두승 이사장이 연단에 나가 두 장관에게 각각 꽃다발과 함께 고마움을 전하며 행사의 화룡

점정을 이뤘다.

이번 행사에서 인종적으로 압도적 참가 규모를 보인 한인 그리고 특히 협회 회원들의 참여는 행사를 크게 돋보이게 했다. 신 회장은 가급적 많은 회원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 일자가 임박하면서 여러차례 독려의 글을 SNS에 올렸으며 지구협회장들을 격려했다.

행사 후 신 회장은 “기대 이상으로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 고맙고 자부심 넘친다.”면서 “변하지 않을 원칙을 발표한 것이고 앞으로 세부안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더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보다 활발한 정부 접촉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지구협별로 참석 현황을 보면 예상했던 대로 뉴마켓, 토론토웨스트, 노스욕, 이토비코, 스카보로 등 거리 상 광역토론토에서 인원이 집중됐으며 나이아가라와 킹스턴 등 먼 지역에서도 상당수 회원들이 새벽 잠을 설치며 운집해왔다. 행사 후 참석한 회원들 대부분은 본부협회에서 예약한 늦은 아침 식사를 인근 한식당에서 함께 들며 편의점 주류판매의 구체적 시행안의 밑그림을 예상하느라고 들뜬 대화를 주고받기에 여념이 없었다.

일부 회원들은 “영업도 여의치 않아 은퇴를 준비하려는 차에 어렵사리 얻은 술장사 재미를 놓칠 수도 없고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됐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런 분위기와 관련해 신 회장은 “주류판매 성사를 계기로 회원수 감소세가 둔화될 것이고 열악한 편의점 영업구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평했다. 식사를 마치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먼길을 되돌아가는 회원들의 발걸음과 표정은 무척이나 활기차 보였다. (행사 주요 장면 화보 10면 참조, 신재균 회장 감사 메시지 11면 참조) ■

**CLOUD SERVER를 통한 포스시스템 유지관리와 실시간 고객 매출등의 데이터 정보교환 가능**

**“1Solutions와 함께 하시면 성공이 보입니다!”**

**포스 가격**

**\$2500 + Tax**  
(바코드 스캐너, 근전함, 소프트웨어 포함)

**1SOLUTIONS**  
DATA CORPORATION

Made in Korea

# 일체형 연동 포스시스템

빠르다!  
간편하다!  
저렴하다!

OLG 온라인 로또 바코드 청약 시행



PRINTED/IMPRIÉ 0103-44 PW ET  
649 \$4.00  
QUICK PICK HERO SLURP  
ON 11 18 37 38 40  
GUARANTEED PRIZE DRAW  
PRIZES DO NOT VARY  
45000430-01  
9993337  
1800-878-2611-4333  
01488 83881

**TIC FACTOR**  
WIN UP TO \$50,000 A WEEK!  
WIN UP TO \$100,000 A YEAR!

[www.1solutions.ca](http://www.1solutions.ca)

Toll Free 1(888)554-7355

Direct Line (905)560-4511

Fax 1(888)544-0409

[info@1solutions.ca](mailto:info@1solutions.ca)

(416)900-7533

불법이다. AGCO가 마리화나(Cannabis) 관련한 주제를 다루는 것은 당연하다. 마리화나의 기분전환용 소비가 합법화되면서 온타리오주에서는 사행성 게임(복권, 카지노, 경마 등)과 술에 이어 마리화나 또한 인허가 관련한 제반 사항을 AGCO에서 관장토록 했기 때문이다.

복권을 취급하는 편의점 등 일반 소매업에서 CBD오일을 비롯한 마리화나 첨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여하한 종류의 제품을 불문하고 무조건 업소에서 제거해야 한다. 적발되면 복권 영업 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일명 캐나비스 액세서리로 분류되는 롤링 페이퍼, 파이프 등은 판매가 가능하지만 이 또한 연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광고 금지 또는 제한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취급해야 한다.

CBD오일이란 캐나비스 식물(대마)에서 추출되며 연방 캐나비스법(Cannabis Act), 온타리오 캐나비스 통제법(Cannabis Control Act), 2018년에 제정된 캐나비스 인허가법(Cannabis Licence Act)이 내린 정의에 따라 캐나비스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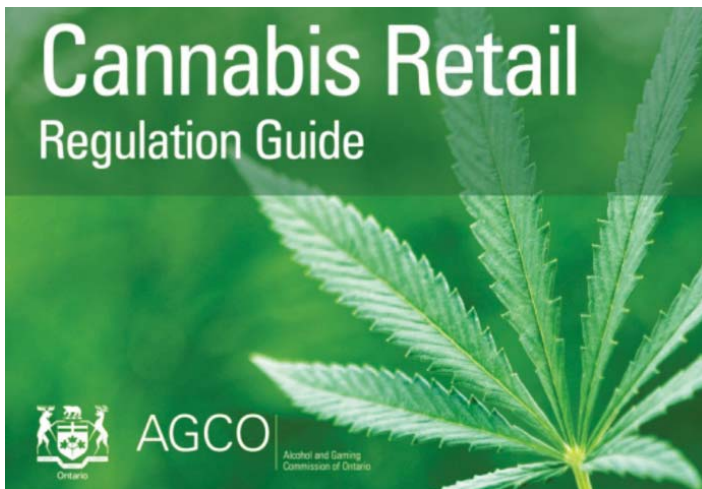
CBD 오일은 물론 기분전환용 마리화나(recreational marijuana)제품은 AGCO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한 캐나비스 소매업자만이 인가된 업소에서 판매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유일한 공급처는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처인 'Ontario Cannabis Store'이다. 의료용 캐나비스는 연방 보건부가 인가해준 특정 업체에서만 합법적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9면에 계속)

## iAGCO 운영, 성공작으로 평가

# AGCO, “편의점 CBD오일 판매 불법”

온주주류사행업감독위원회(AGCO)의 최근호 '로터리 라인'이 CBD(cannabidiol) 오일 제품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어서 주요 부분을 요약 소개한다. 결론은 편의점 등 일반 소매업소에서 CBD오일을 판매하면



## 아담유 합동 법률그룹

Adam Yoo Stigler Nguyen & Associates

각 분야 전문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여러분의 법률 문제를 최선을 다해 해결해 드립니다.

<p><b>교통사고, 개인 상해</b></p> <p>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교통 사고 후유증에 관한 최대 보상, 낙상, 정부 과실 보상 소송</p>	<p><b>교통위반 티켓</b></p> <p>과속, Stunt Driving, 무보험, 신호 위반, 뺑소니 등 모든 교통법규 위반</p>	<p><b>형법</b></p> <p>음주 운전, 폭행, 절도, 사기, 마약(Drug) 보석(Bail) 등 모든 형법 위반</p>
---	--	---

- \* 형법
- \* 소액재판
- \* 복권 판매법

- \* 가정법
- \* 세권, 세입자 분쟁
- \* 담배 판매법

- \* 민사소송
- \* 주류 판매법
- \* 회사 설립

\* O.D.S.P. 신청(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  
1년 이상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시 청구 가능.

“강력한 실력, 오랜 경력, 섬세함으로  
모든 법률 문제 해결”

변호사 : Leonard Stigler, Mai Nguyen, Shiv Passi  
법무사 : Adam K. H. Yoo, David Song, Mark Ginz  
Kate N. Han, Hassanein Bhaloo,  
Earl Francis Dacara

T : 416.739.8887 / 647.891.8867 / F : 416.739.7559  
1018 Finch Avenue West, Suite #100, Toronto

## 음료 신제품 러쉬와 편의점 대응 전략



즉석 커피, 다시 말해 용기에 이미 담겨있어서 따 마시기만 하는 커피 - 이를 RTD 커피라고 한다. RTD는 "ready-to-drink"의 약어로 업계에서 익히 쓰는 용어다. 그런데 이 RTD커피부터 각종 차(tea)와 광천생수(sparkling water)에 이르기까지 신제품 러쉬가 일어나고 있다. 사상 최고의 가치를 자랑한다. 제조사 저마다 혁신적인 무엇인가를 시도한 때문이고 소비자들의 다양성에 대한 욕구가 커진 탓도 있다.

음료 제조사들은 제품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편의점 업주들에게 역시 똑같이 중요한 과제임을 잘 알고 있다. 편의점의 경우, 특정 음료를 취급하지 않는데 손님이 찾으려면 아주 낭패다. 손님 발길이 이 하나로 완전히 끊길 위험마저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전체 문화가 다양성이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 소비자 선택폭이 넓어지고 있고 이에 잘 길들여져 있다.

 **onewholesale.ca**  
Smoke Shop / Headshop / Convenience Store Wholesaler

Authorized Zippo Dealer

**원도매상**

**Order online by noon for **SAMEDAY SHIPPING****

\*Ask for Free Zippo Display

BONGS, DAB RIGS, BUBBERS, RECYCLERS, HAND PIPES, E-CIG,  
VAPORIZERS, GRINDERS, DUGOUTS, SCALES, SMOKING PAPERS,  
ALL KINDS OF SMOKING ACCESSORIES  
ZIPPO LIGHTERS, and ETC.

### Business Hours

Monday to Friday  
**9.00am - 5.00pm**  
Saturday  
**9.00am - 2.00pm**  
Closed on  
Sunday and Holidays

Cash & Carry Store  
606 Magnetic Dr Toronto, ON M3J2C4

onetradingltd@gmail.com  
T. 416 661 6664 F. 416 661 6668

뉴욕에 소재하고 있는 브랜드 개발 전문업체 CBX의 CEO 와케시마 사 토루씨는 “요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것을 시도해본다는 것은 그리 심각한 결정 사항도 아니고 그냥 무심히 이루어지는 일상사일 뿐”이라고 말하며 소비 품목 중에서 특히나 음료분야가 그렇다고 설명한다.

와케시마씨는 올해 음료 시장의 주목할 트렌드의 하나가 이전 2년 간에 보여준 신제품의 폭발적 러쉬 현상이 계속 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 제품 유형의 경계 허물기 현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본다.

일명 하이브리드 제품이 많아진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다.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때보다 더 높아지고 있고 그런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비례적으로 어렵다.” 자, 배경은 이쯤해두고 전문가들이 이런 트렌드를 염두에 두며 편의점 운영주입장에서 새로이 쏟아져 나오는 제품들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네가지 팁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하에서 이를 정리 소개한다.

### 1. 공간 안배의 스마트한 재조정

소매업소에서 취급 품목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고 특히나 좁은 공간인 편의점의 경우 공간 제약은 더 크다. 따라서 음료 진열 공간 안배를 영리하게 해결해야 한다. 이에선 필요하다면 특정 공간은 축소한다는 방안까지 아우른다.

달리 말해 안되는 아이템은 과감히 공간을 줄여버리고 이 여유공간에 잘나가는 음료 공간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항상 변함없이 자리를 차지하는 공간이란 있을 수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이해하면 된다.

케이든트 컨설팅 그룹의 사업 분석가 피터 키니씨는 “하락세나 둔화세를 보이는 품목군을 치우고 그 자리에 보다 혁신적이고 인기를 타는 제품군을 할당해 줌으로써 손님들의 시선을 끌도록 하는 것은 소매업소 성공의 핵심 중 하나”라고 강조한다. 대표적인 상품군이 오늘날 우유다. 우유는 매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제품군으로 이것이 차지하는 공간을 인기 생수에 양보해줘야 한다.

### 2. 선택에 대한 소비자 확신 심어주기

소비자들은 신제품에 대한 욕구가 크다. 하지만 자신이 좋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을 얻고 싶어 한다. 바람직한 설득을 당하고 싶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위의 CBX 대표 와케시마씨의 말이다. “소비자를 모바일, 온라인 등으로 교육시켜 최종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작업은 일상화 추세를 걷고 있다.”

### 3. 소비자 입장으로 생각하기

소비자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품목군 세분화 작업에 앞서 제품에서 공통적으로 기대하는 동기부여(need states), 즉 제품 구매 욕구가 발동하는 동기 탐색 작업에 가까운 표현이다. 보다 단순화하자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쇼핑을 하는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전제로 할 때 넘쳐나는 음료수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돼 쿨리의 진열대에 오르는 분석 기준은 소비자 니즈여야 한다.

NPD그룹은 소비자 니즈를 크게 4가지로 구별했다. 기대감, 친밀감, 일체감, 만족감(fueling, wellness, connecting, gratifying)이 그런 정서들인데 이 4가지 기본 니즈를 더 세분화해서 특별한 소비자 행동으로 파고 들 때 바로 ‘need states’ 단계에 들어간다고 한다.

앞의 기대감(fueling)이라는 범주하에서 니즈 스테이트의 한 예를 보자. ‘휴대하기 편안함’(easy on-the-go), ‘주의환기’(staying awake) 등의 심리 상태 등이 따라 붙는다. 만족감(gratifying)의 하위 정서로는 예를 들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음료수’, ‘아침에 마시기 좋은 음료’ 등으로 구체화 된다.

### 4. 트렌드 따라잡기

포장 음료 제품군의 가장 최근 트렌드에 늘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여기에 더해 업주들은 해당 품목군 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트렌드까지 포괄해서 살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트렌드라는 것이 지금은 특정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다른 분야로 넘어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당 제품군 이외의 주변까지 살펴서 대체를 미리 파악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오늘날에야 전자담배가 일상화됐지만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 최근 주목받는 CBD 음료. 미국에서는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전화주세요!



**BROKERTTEAM**  
INSURANCE

**박효진(Roland Park)**  
**Cell. 416-985-5287**

Main : 905-770-8828  
Fax : 905-770-8851  
roland.park@brokerteam.ca

**실험 단체보험**



일반 담배를 놓고 여전히 전략을 짜고 마케팅을 했었다. 하지만 당시 발빠른 제조사나 공급사 심지어 소매업주들도 일반 담배 이외의 담배 시장 동향을 간파하고 시장 선점을 주도했고 성공을 구가하고 있다. 트렌드는 따라 잡는 것은 물론이고 선도할 수도 있다.

오늘날 가장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보이는 음료군은 광천수(sparkling water), 에너지 드링크, RTD커피인데 최근 이들 품목군의 성장세는 두자리를 보이고 있다. 일반 생수든 광천수든 생수 시장은 탄산음료 시장을 꾸준한 속도로 대체하고 있다.

앞의 케이든트 컨설팅의 키니씨는 “식물성 프로바이오틱 음료가 매출 견인차의 하나로 부상 중인데 여기에 기능성 음료와 니트로 콜드브루 커피 등도 힘을 보태고 있다” 고 한다.

또 하나 눈여겨볼 음료는 CBD(cannabidiol)음료로 마리화나 성분이 가미된 음료를 말한다. 매출이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데 캐나다는 아직 미국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부 정책 여하에 따라 음료 시장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근래에 본부협회가 연방 중소기업부 장관 보좌관과의 회의에서 보좌관이 내놓은 조언이 마리화나가 함유된 식품을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긴밀하게 상의해보라는 것이었는데 그만큼 시장성이 좋은 제품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

〈6면에 이어〉 AGCO, “편의점 CBD오일 판매 불법”



iAGCO, 잘 시작했다!

한편, AGCO소식지는 작년 11월 19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온주 복권판매소매업소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현재 복권 관련한 AGCO 업무는 온라인상으로도 가능하다. AGCO는 온라인포털 [www.agco.ca/iagco](http://www.agco.ca/iagco)를 통해 보다 빠르고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권 판매자의 등록 신청, 갱신 및 변경을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 시행하게 된 것이다.

온라인 서비스개시 후 3월 말 현재 840건 이상이 iAGCO를 통해 이뤄졌으며 이만하면 큰 성공이라고 자평했다. 신규 등록 신청이 356건, 변경은 436건, 갱신은 56건으로 집계됐다. ■

# 주 / 요 / 장 /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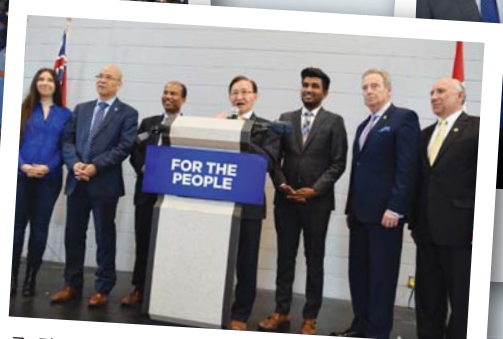
## 빅 피델리 장관의 새 예산에 대한 특별 연설



행사 개막 전 테이블에 앉아 있는 참석자들의 모습. 온통 회원들의 모습으로 흥성거린다.



연설에 앞서 조성준 장관과 빅 피델리 장관이 잠시 시간을 내 협회 회원들과의 기념촬영에 임했다.



조 장관이 스카보로와 인근 지역의 동료 의원들을 소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Christina Maria Mitas (Scarborough Centre), Vincent Ke (Don Valley North), Logan Kanapathi (Markham—Thornhill), Vijay Thanigasalam (Scarborough—Rouge Park), Lorne Coe (Whitby), Aris Babikian (Scarborough—Agincourt)>



피델리 장관이 초청 연사로 나와 전날의 예산안 발표 내용 중 핵심을 소개하기에 앞서 예산책자를 들어 보이고 있다.



편의점 주류판매를 재차 확인하는 발언을 하자 만장의 박수갈채가 우렁차게 터져 나왔다



본부협회 신재균 회장과 이두승 이사장이 피델리 장관 연설이 끝나자 연단에 올라가 꽃다발을 전하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협회 회원들만 연단에 모여 “우리는 하나”임을 과시하는 기념촬영을 했다.

# 시작이 반이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본부협회 회장  
신재균



온주 편의점 업계의 수십년 숙원 과제인 주류판매 허용이 마침내 성사됐습니다. 15년 자유당 집권이 보수당으로 정권 교체된 후 일어난 놀라운 변화 중 하나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기존 소매채널과 민간이 운영하는 소매채널이 공존하는 민관 이원화 시스템이 예상되는데 확실한 것은 정부의 추가 세부 시행안이 발표되면 밝혀질 것입니다.

알버타는 93년에 민영화하면서 수입과 도매만 정부가 관할합니다. 퀘벡이 편의점에서 주류판매를 해온 역사는 매우 오래됐습니다. 뉴펀들랜드 역시 편의점에서 맥주와 와인을 살 수 있습니다. 이웃 미국은 물론이고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편의점 술 판매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유별나게 캐나다 온타리오는 주민들의 건강을 챙기고 미성년자의 유혹을 차단한다는 명분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며 편의점 불허 정책을 고수해왔습니다. 새 정권의 표현따따나 국민을 어린아이 취급하는 오만일 뿐입니다. 그래서인지 새 정부는 지난 4월 11일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편의점 주류 판매를 허용하는 명분으로 “성인을 성인으로 대우한다”(We are treating adults like adults, by making it easier for you to buy beer and wine.)는 표현을 썼습니다. 과거 자유당의 반대 명분을 풍자하며 질타하는 촛불시위의 문구로 가슴이 땁 뚫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오늘의 결실은 결코 순탄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기에 더 값지고 빛납니다. 대정부 로비에 있어서 쇠귀에 경읽기 심정의 술한 좌절과 실망을 거름삼아 수십년 전 협회 선배들때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두드리고 또 두드렸습니다. 100만인 서명 운동을 한 적도 있었고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그냥 꿈이지만 모두가 꾸는 꿈은 현실”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절박하게 외쳐대기도 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더라고 편의점 비어와인 허용을 늘 강조해왔던 조성준 의원의 측면 지원은 커다란 힘이 됐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입각까지 하게 되자 더 공을 들여 목소리를 전해 주신 것에 대해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한분의 정치 신인인 스탠 조 의원 역시 재무 분야에서 당의 중책을 맡아 협회에 우호적인 입장을 전하며 관심과 배려를 쏟고 있습니다.

출신 배경의 정치인을 가진다는 것의 위력을 실감합니다. 이들의 지원은 특히 돈줄을 쥐 막강한 힘의 원천인 재무부와 협회의 관계를 긴밀하게 했고 입장을 기탄없이 전하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차례 재무부와의 의원, 보좌관을 만나 주류판매 시스템의 성공적 개선에 대해 무게있는 대화를 나눈 것이 정책에 깊이 반영됐음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예산 발표 수시간 앞서 특정 압력단체에게만 허락된 ‘예산미리보기’의 기회를 부여받은 것은 협회의 위상이 어떤지를 단적으로 증명합니다. 협회는 이제 새정부의 해당분야 공식 이해당사자로 관리되는 우월적 지위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단합력과 한인출신 정치인들의 지원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편의점 주류판매는 요즘 모국에서 외교관련해 한창 유행어가 되다시피 한 ‘불가역적’(不可逆的 irreversible)이라는 표현으로 정리됩니다. 없던 것으로 물리지 못하는 기정사실화이며 재무장관 입으로 여러 차례 공언했고 예산 발표 다음날인 4월 12일 아침에 있었던 스카보로 지역구 예산 설명회 자리에서도 거듭 되풀이해서 말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다 된 것입니다만 정책이라는 것이 그러하듯 원칙은 정했었지만 이를 구현하는 세부안이 수립돼야 비로소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디테일에 들어가며 예상치 못한 복병이나 암초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피해가며 온전히 우리들의 바람대로 정책이 나오려면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4월 12일 스카보로 행사에 160여 명의 회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주셨습니다. 참석한 회원님들과 참여를 독려하고 조직했던 지구협회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싶은 여운이 남는 것은 일부 지구협회의 무관심때문입니다. 좋은 결실을 거둔 잔치판에 그냥 편승하는 미안한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 시작인 앞으로의 행동 대열에 뒤늦게나마 힘을 보태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케팅 전문가들은 Z세대를 대상으로 한 홍보나 판촉을 디지털에 기반한 방법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크다. 당연한 대응이다.

또하나의 특징으로 이들은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 천연 먹거리의 장점을 집중적으로 교육받고 자란 세대다. 이름보다는 실속을 중시하는 소비자층이므로 품질이 문제다. 이를 반영한듯 최근 식품점의 선반에 건강친화적 천연식품이 부쩍 늘고 있다. 주전부리 하나를 고를 때도 Z세대는 기능성을 중시하는데 여기서 기능성이란 쉽게 말해 휴대 이동의 편리성을 의미한다. 더 쉽게 말해 영양가 높은 식품을 편하게 들고 다니다가 아무때고 우적거리고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요약된다.

NPD자료에 의하면 2023년에 이르면 건강 스낵 품목군의 성장률을 5%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소비층이 Z세대 고연령층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Z세대의 고연령이란 5년 후 20대 중 후반이 되는 나이를 말한다. 건강스낵분야에서 가장 강한 성장세를 보여줄 품목으로는 신선과일(55%), 냉동요구르트(14%), 견과류 (nuts/seeds)가 꼽힌다.

Z세대는 디지털로 음식 주문을 선도하는 소비자층인데 2013년 이후 연평균 23% 성장해왔으며 2020년까지는 디지털 주문 매출액이 현재의 3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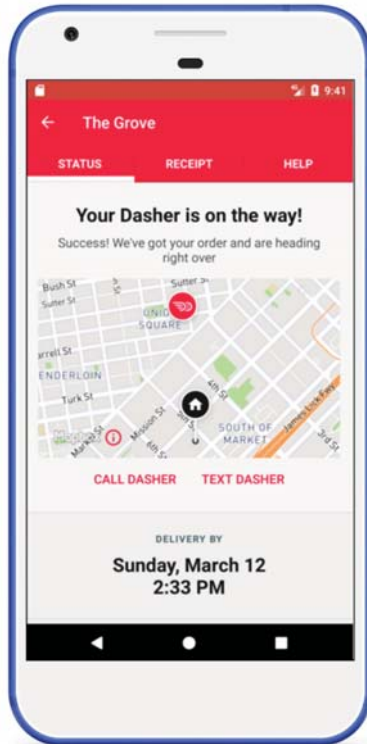
한편, 밀레니얼층과 유사하게 Z세대도 패스트푸드점 단골 고객층인데 2018년 방문횟수로 146억 회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푸드서비스 이용 방문횟수의 10%를 점하는 수치다. 음식 배달 서비스 주문은 5억 5,200만 회인데 밀레니얼 세대 고령층도 이에 필적한다. 레스토랑에서 테블릿을 이용해 주문하거나 키오스크 주문에 가장 능숙한 세대 또한 Z세대다.

Z세대의 한 모습을 연상해보자. 주변에서 이런 풍경을 흔하게 만날 것이다. 친구들과 잡고담을 즐기면서 엄마에게 문자를 보내고 동시에 피자 하나를 주문한다. 동시다발 행위를 즐기는데 아무 지장이 없이 편하다.

한마디로 멀티태스킹에 능한 세대다. 노래들으며 흥얼흥얼거리면서 공부하거나 숙제하던 세대다.

이제 막 우리들의 기성 문화, 경제, 사회무대에 등장한 이들이 더 큰 경제적 번영의 환경하에 성인 대열에 오르면서 자기들만의 차별화된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순간이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푸드서비스에 무게가 실려있는 편의점 업자들은 미래의 큰 잠재 고객인 Z세대와의 유대를 든든히 해둘 것을 강조하고 있다. ■

◀ Z세대의 한 네티즌이 음식 주문을 하자 이와같은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푸드서비스의 가장 큰 잠재고객인 Z세대에 대해 편의점 업계도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철저하게 인터넷으로 세상을 사는 세대이다.



## 신선과일, 냉동요구르트, 견과류 성장 주목

# Z세대, 푸드서비스 시장의 막강 잠재력 부상



시장 조사 기관 NPD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Z세대(Gen Z)가 향후 푸드서비스 업계에 엄청난 규모의 영향력을 몰고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세대의 영향력을 ‘seismic’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주목하고 있는 NPD는 두가지 개념인 편리성(convenience)과 기능성(functionality)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이 세대의 시장 잠재력을 중시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자료이나 캐나다도 유사한 현상일 것으로 추정해도 무방하다.

Z세대는 대략 올해 기준으로 12세에서 22세 정도 사이의 연령대이며 이제 막 성인 대열에 끼어들고 있다. 그리고 이들부터 서서히 기성조리 포장음식(packaged food)과 푸드서비스 산업에 구매력을 과시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시장분석가들이나 회사 마케팅 부서 직원들이 가장 분석하기 힘든 소비자층이기도 하다.

이 세대는 인터넷을 통해 생활하고 있고 세상을 이해한다.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서 음식 주문하는 빈도는 이들보다 더 나이많은 어떤 세대보다 많다. 이런 특징에 더해 이들은 브랜드보다는 맛과 기능 다시 말해 실용성에 무게를 둔다. 실속없는 명성 따위에 덜 영향을 받고 덜 민감하다.

아주 재미가 좋다. 손님들이 우리 가게에 들러 픽업해가는데 손님 트래픽 증대에 정말 좋은 사업이다. 일주일에 50~60파운드(캐나다화 88~105달러)가 수수료로 챙기는 수익이다. (대략 한달이면 400 달러 전후가 되는 금액이다.) 그런데 이 수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배달품을 수령하러 들르는 손님의 70~80%가 가게를 한번 둘러보고는 간단한 무엇이라도 하나 사들고 나간다.

그런가 하면 발송할 물품을 들고 온 손님의 경우는 곁에 부착해야 할 라벨 구입에 3~5파운드를 지출하거나 QR코드 스캔을 하는데 이 또한 수입이다. 택배 중간기지 역할의 대형 서비스에서 가장 많은 소포 물량은 아마존과 이베이 것이다. 이밖에 페이포인트(PayPoint) 현금 충전 서비스와 복권도 중요한 부대 서비스다. 그리고 ATM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수수료 안받고 무료다. 그러나 무료로 해준 만큼 새로운 손님을 꽤 많이 얻었으니 이득이긴다.

**D:** 내 가게는 우체국을 겸하기 때문에 배달 서비스는 당연하지만 이외에 무료로 사용하는 현금서비스 머신, 페이포인트, 복권 등을 겸한다.

**S:** 내 업소도 복권과 페이포인트 사업을 한다. 6개 업소 중 2개는 우체국을 겸하려고 정부에 신청을 해놓고 연락을 기다리는 중이다.

**H:** 우리가게도 페이포인트 서비스와 복권 서비스를 한다. 그리고 UPS와 계약해서 물품 중간 보관처와 배달 대행 서비스를 해준다. (\*UPS가 인근 주민 수령자의 소포를 계약한 편의점에 놓고 가면 수령자들이 찾으러 올 때 내주고 또 자신의 배달물을 대신 업소에서 배달할 수 있게 서비스 해서 UPS가 규칙적으로 일거에 가져가는 중간 서비스 기지. 앞의 P씨가 허미즈와 제휴하고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임) 어떤 경우에는 고객의 집으로 즉석 배달하는 경우도 있다. 특별 서비스다. 여타트 소포물 배달 대행 서비스를 통해 시너지 효과로 손님들의 추가 쇼핑이 이루어지니 큰 이득이다. 택배 제휴 서비스를 추가한 보람이 충분하다. 주 평균 10건 ~ 15건 정도의 서비스가 발생하고 있다.

### ■ 부가 서비스가 비즈니스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P:** 업소가 영세하면 할수록 그 지역에서 독보적인 서비스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요즘 그저 그런 식료품이나 여타 상품들은 대부분이 온라인으로까지 구매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는 손쉽게 구할 수 없는 독특한 물건을 취급함으로써 손님의 발길을 이끌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택배 서비스는 점점 수요가 더 많아질 분야이고 온라인을 통한 집적이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써 편의점 업소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센터와 같은 절실한 공간 기능을 강력히 발휘하게 될 것이다.

**D:** 과거처럼 잘 팔리지도 않는 전통적인 품목들 - 신문이나 잡지가 단적인 예 - 대신 서비스 기반의 사업으로 편의점도 전환해야 한다는 사실에 빨리 눈을 떠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ATM머신은 그 어느 상품에 비해 더 많은 손님 트래픽을 유발하는 아이템이다. 우체국을 겸하고 있어 현금 서비스가 상당히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 우체국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ATM서비스가 지금처럼 절실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편의점 매출에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키지도 못했을 것이다.

**S:** 부가 서비스가 손님들의 발길을 더 갖게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가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추가 서비스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돈이 투입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다. 예를 들어 페이포인트 서비스로 은행에게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든다. 비즈니스에 가외의 비용이 낭비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아닐까 싶은 마음이다. 게다가

## 영국 모범 업소 사례를 중심으로

# 추가수익 창출 위한 부대 서비스

업소에서 일상적으로 판매하는 편의점 핵심 상품들 이외에 타 경쟁 업소와의 차별화와 추가 수익 창출을 위해 어떤 부대 서비스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어려운 영업 환경일수록 이 점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본부협회도 독립편의점으로서의 열세를 안고 분투하는 회원들의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많은 다양한 부대 서비스 사업을 발굴해서 회원들에게 소개해 꽤 많은 회원들이 만족해하고 있다. 세인트지미 커피 사업, 어댑트미디어 광고제휴 사업 등이 대표적인 결실을 맺은 사업들이라 더욱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가입 회원들의 더 많은 협조와 격려가 필요하다.

이하 영국에서 부가 서비스를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모범적 사례 몇가지를 소개코자 한다. 업소는 네 곳이다. 영국 편의점 매체 'Convenience Store'가 주인들과 인터뷰를 통해 취재한 생생한 미담들이다.



▲ 왼쪽부터 Carlton Stores 주인Param Athwal, Eggborough Village Store & Post Office 주인 Dav Kular, 웨스트미들랜드 지역에서 주유소병설 편의점 6개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Shailesh Parekh, Nisa Village Stores 주인Harj Dhasee (이하 편의상 P, D, S, H로 칭한다.)

### ■ 어떤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

**P:** 택배업체 마이허미즈(My Hermes)와의 제휴로 소포를 받고 있다.

가 이 투자로 인해 매출 증대에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 산출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서비스들이 바로 주인이 고객을 위해서 의당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바꾼다. 내 가게 6개 중 3개가 택배 서비스 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잘되고 있다. 복권 수수료 5%도 부수입이다. 요즘 손님들 윈스톱 서비스를 아주 선호하는데 이처럼 다양한 불일을 볼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매력적이고 업주에게는 추가 수익을 보장한다.

**H:** 온라인 쇼핑의 성장에 주목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사이버 공간에서의 구매 물건을 수령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의 가장 편한 포인트가 바로 편의점이다.

**■ 업소 내부에서의 이런 저런 서비스들이 고객을 단골로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가?**

**P:** 내 업소는 이런 부가 서비스가 트래픽 증대의 결정적 도움을 얻고 있다. 택배 서비스 마이허미즈(My Hermes)로 주 평균 10~12명의 손님이 방문하는데 가게 소재지는 도시를 벗어난 외곽인데도 이 정도이니 만약 가게가 인구가 더 밀집한 지역이었다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문객은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여하튼 택배 서비스를 시작하고부터 곧바로 효과가 나타났고 대부분의 새로 창출된 고객은 젊은 층이다. 이제 우리 가게를 찾는 손님 구성비는 연령대로 볼 때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대략 어느 정도 거리가 나간다고 볼 수 있는 4-5마일 떨어진 곳에 사는 손님들의 발길이 잦아들고 있는데 이 택배서비스때문이다. 적지 않은 수의 새 고객이 창출됐다.

**D:** 많은 단골 손님들이 우체국 서비스를 비롯한 부대 서비스때문에 내 가게를 찾는다. 그리고 본래의 용무를 보고는 들른 김에 그냥 무심코 다른 아이템들을 구입한다. 슈퍼마켓에서 할 쇼핑의 상당 부분이 우리 가게에

서 부가 서비스로 인한 시너지 효과로 이뤄지고 있다.

**S:** 우리 가게 역시 그렇다. 대체적으로 부가 서비스때문에 가게를 찾게 된 손님들이 편의점 단골로 변하게 된다.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효과가 나고 있는 것 같다.

**H:** 당연하다. 부대 서비스로 맺어진 인연은 자연스럽게 단골손님으로 이어진다. 택배 서비스의 중간 기지로서의 역할에 더해 장바구니가 커지고 있다. 단순히 부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주전부리 수준의 쇼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독립 편의점의 경우 천원일천적인 슈퍼마켓 취급 아이템 이상의 특별한 것들 - 추가 서비스든 이색적인 상품이든 - 을 취급한다면 손님의 큰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 제휴 파트너로 특별히 매력적인 회사는 어떤 것들인가?**

**P:** 택배 서비스를 위해 제휴하고 있는 파트너인 마이허미즈는 정말 좋은 파트너이며 일도 아주 수월하다. 소포 한 건 처리하는데 1분도 안 걸린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소형 배달물 투여함인 라커 서비스를 하는 곳을 찾는다면 상당히 괜찮은 서비스가 될 것 같다.

**D:** 요즘 우체국 서비스를 겸하는 편의점의 서비스 수준이 워낙 빨라 손님들의 불만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추가 서비스 사업은 편의점에서 해볼 만하다.

**S:** 복권을 포함한 사행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카멜롯(Camelot)은 제휴하기 가장 손쉽고 편한 상대일 것이다. 우편사서함 인포스트(In-Post) 서비스도 곁들이고 있다. 그런데 요즘 가만히 비교해보니 아마존 라커 시스템이 더 나은 것 같아 신청해놓고 답을 기다리는 중이다.

**H:** 최근 카멜롯 고객 서비스 응대가 상당히 좋아졌다. UPS 서비스 역시 대단히 프로급 수준이다.페이 포인트(PayPont)는 과거에는 이런 저런 문제점들이 많았으나 상당히 해소됐다. ■

## 캐나다한인여성회 2019년 5월 프로그램

**캐나다 시민권 시험 준비반**

- ☑ 일시: 5월 2, 9, 16일 (목) 총 3회기 오전10시 - 오후12시
- ☑ 장소: KCWA 노스옥
- ☑ 담당: 정착상담원 김효원 (문의: 416-340-1234)
- ☑ 내용: 1. 캐나다 시민의 권리와 책임
- 2. 캐나다의 역사, 근원대사
- 3. 캐나다의 정부, 사법시스템
- 4. 캐나다의 상징, 경제, 지리
- 5. 문제풀이

**너와 나의 소중한 시간**

- ☑ 일시: 5월 7, 14, 21, 28일 (토) 총 4회기
- 오전10시 - 오후12시
- ☑ 장소: KCWA 노스옥
- ☑ 담당: 정착상담원 김진옥 (문의: 416-340-1234)
- ☑ 내용: 1. 부모됨이란?
- 2. 부모로서의 자기 이해
- 3. 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른 양육방식
- 4. 양육태도에 대한 자기평가와 바람직한 부모역할

**OSAP 정보 세미나**

- ☑ 일시: 5월 15일 (수) 오전10시 - 오후12시
- ☑ 장소: KCWA 노스옥
- ☑ 담당: 정착상담원 이선경 (문의: 416-340-1234)
- ☑ 내용: 1. OSAP이란?
- 2. OSAP자격 조건
- 3. OSAP신청 시기 및 방법
- 4. OSAP상환 방법
- 5. 질의응답

**OSAP 신청서 작성**

\*OSAP 정보 세미나를 사전에 수강하신 분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 ☑ 일시: 5월 22일 (수) 오전10시 - 오후12시
- ☑ 장소: KCWA 노스옥
- ☑ 담당: 정착상담원 최성혜 (문의: 416-340-1234)
- ☑ 내용: 1. OSAP이란?
- 2. 신청서 작성법
- 3. 신청서 작성의 실제

\*개인 상담자람 필수

**시니어 연금**

- ☑ 일시: 5월 13일 (월) 오전10시30분 - 오후12시
- ☑ 장소: KCWA 노스옥
- ☑ 담당: 정착상담원 강영숙 (문의: 416-340-1234)
- ☑ 내용: 1. 캐나다 퇴직연금(CPP)
- 2. 노령보장연금(OAS)
- 3. 소득보장 보조금(GIS), 온타리오 보조금(GAINS)
- 4. 배우자 보조금 및 미망인을 위한 배우자 보조금
- 5. 질의응답

**캐나다 시민권 신청 안내**

- ☑ 일시: 5월 14일 (화) 오전10시 - 오후12시
- ☑ 장소: KCWA 노스옥
- ☑ 담당: 정착상담원 김효원 (문의: 416-340-1234)
- ☑ 내용: 1. 캐나다 정부의 시민권 정책 방향
- 2. 캐나다 시민의 의미
- 3. 시민권 개정안 안내
- 4. 시민권 신청을 위한 안내
- 5. 시민권 시험 및 시민권 전서식 개요

**내 자녀의 알리지 질환과 성장 발육**

- ☑ 일시: 5월 17일 (금) 오전10시 - 오후12시
- ☑ 장소: KCWA 노스옥
- ☑ 담당: 정착상담원 주영숙 (문의: 416-340-1234)
- ☑ 내용: 1. 아토피, 비염 등의 알리지 질환과 성장발육과의 관계
- 2. 내 자녀의 성장발육을 위협하는 요소 파악하기
- 3. 내 자녀의 면역력 강화 방법
- 4. 체질개선과 건강관리로 성장 잠재력 향상시키기

REGISTER HERE

등록 및 문의: 416-340-1234 [www.kcwa.net](http://www.kcwa.net)

-KCWA 다운타운: 27 Madison Ave. Toronto  
-KCWA 노스옥: 540 Finch Ave. W. Toronto

커뮤니티 자원봉사

- 일시: 5월 11일, 25일(토) 오전10시 - 오후2시
- 장소: Good Shepherd Ministries
- 문의: KCWA캐나다한인여성회 (416-340-1234/ 416-340-0838)

KCWA캐나다한인여성회 순회 상담 서비스 안내

- 일시: 5월 13일 (월) 오후 1시30분 - 오후 4시30분
- 장소: 토론토 총영사관 (555 Avenue Rd, Toronto)
- 문의: KCWA캐나다한인여성회 (416-340-1234/ 416-340-1777)

사전등록 필수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지참

14 |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 이제 철드나 보디



마더스테이가 가까이온다. 매년 5월이 되면 우리 가게는 봄철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하여 꽃을 사러 다닌다. 토론토 후드터미널에 가서 사오기도하고 해밀턴이나 나이아가라에 있는 농장에 가서 직접 꽃을 골라 오기도한다.

주로 사오는 꽃은 현관 앞이나 뒷뜰에 걸어들어 여름 내내 피어있는 꽃을 감상할 수 있는 행인 바스켓으로 사온다. 꽃의 종류도 수없이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 전문적으로 꽃을 취급하지 않는 가게이기엔 그냥 평범하고 사람들이 잘 사는 꽃종류로 몇가지만 사온다.

제라늄, 마사 워싱턴 제라늄, 베고니아, 하이드란자, 밀리언 벨, 페츰니아, 임페이선스, 여러가지를 바구니에 함께 심어놓은 모든 꽃 등등 그리고 조금 지나서 고추, 딸기 같은 채소, 과일류도 사다놓으면 팔리기도 한다.

1년 중 꽃이 제일 많이 팔리는 때가 마더스테이인지라 5월 초부터 이꽃저꽃을 사서 미리 가게안에 보관해둔다. 꽃이 많이 팔릴 때는 기분이 좋고 신이 나며 분위기도 한껏 달아오른다. 그렇지만 꽃을 팔아본 사람은 안다. 꽃을 취급하는 것이 얼마나 일이 많고 성가시고 귀찮은 일이라는 것을.

꽃을 사러 새벽에 일어나 졸린 눈을 비벼가며 꽃장에 가는것도 힘든 일이지만 (많은 분들은 아예 잠을 안자고 밤 12시쯤 꽃장으로 향하는 분들도 있음) 꽃을 사오고 난 후에도 물주고 시든 꽃 따주고 아침에 밖에 내놓고 저녁에 가게 안에 다시 들여놓는 일 등등 해야 할 일이 보통 만만한 게 아니다.

그것도 가게가 넓어 꽃이 다 들어갈 수 있으면 다행인데 가게안이 그리 넓을 리가 없지 않은가? 렌트비가 얼마데 ㅎㅎ... 그래도 꽃을 한번 취급하기 시작하면 안하고는 못배기는게 또 이 꽃장사다.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또 꽃시장을 간다.

나는 새벽에 잠을 설치면서 후드터미널에 가서 꽃을 사는 것보다 꽃농장에 직접가서 골라오는 것을 더 선호한다. 꽃농장은 낮 시간대에 갔다올 수 있는 데다가 마치 여유있게 한적한 시골길을 드라이브하는 기분으로 다녀오면 비록 시간에 쫓기기는 하지만 마음이 편안하고 잠깐이나마 나

들어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다.

오늘도 나는 그 꽃장을 보러 첫 나들이로 나이아가라 농장으로 향한다. “귀찮고 일도 많아지고 힘도 들지만 올해도 또 시작해보자” 하는 생각을 하며 차에 시동을 걸었다. 나는 차를 타고 이동할 때는 언제부턴지 주기도문 33번을 외우고가는 습관이 들었다. 오늘도 주기도문을 다 외우고 난 후에 자연스럽게 기도를 드린다.

“주님 지금 저는 꽃을 사러 가고있습니다. 제가 사러가는 이 꽃이 누구에겐가 팔려서 그사람들이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무릎을 탁 치며 “아~ 이것이 내가 꽃을 취급하는 이유구나”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여태껏 꽃을 팔아 얼마 돈이 남고 장사를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번에는 날씨가 나빠 장사가 잘 안되었느니 그런 생각만 했지 이 꽃이 누구에겐가에 전해져서 그가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은 해 본적이 없었다. 그저 꽃을 상품으로만 생각했지 그 꽃의 가치나 꽃 자체의 아름다운 모습, 색깔, 향기 등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아~ 그렇다. 내가 준비하였다가 팔려나간 이꽃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그 꽃을 받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면 나도 그에게 행복을 전달해 주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아닌가! 그렇다면 나도 간접적인 행복 전도사가 되는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 갑자기 마음이 밝아지면서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마치 내 몸이 무슨 큰 일을 하나 끝낸 뒤에 오는 홀가분한 그런 상쾌한 기분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이가 환갑이 넘었는데 이제 조금 철이 드나보구나 하는 씩씩한 생각을 하게 되니 조금 부끄러운 생각에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기도 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이제부터는 너무 장사에만 연연하지 말고 마음을 조금 더 열고 세상을 좀더 넓게 바라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며 해바라기가 들려주는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을 들어본다.

<회원들의 글을 기다립니다. 형식과 장르를 구애받지 않고 진솔한 글은 무엇이든 환영합니다. 보낼 곳 : 이메일 mimihyun@okba.net> ■



# EXCLUSIVITY AGREEMENT <2019>

Nestlé Ice Cream



This agreement, between Nestlé Canada Inc. ("Nestlé") and a member ("Member") of the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OKBA"), is governed in consideration of the mutual agreement made with OKBA for all of its members. Nestlé agrees to pay the Exclusivity Rebate to every OKBA Member that carries Nestlé Ice Cream exclusively.

On top of the 4% sales Rebate, 4% of Exclusivity Rebate will be paid quarterly by OKBA Head office to member stores selling Nestlé Ice Cream products exclusively, Novelties and Packaged.(Exclusive member : total 8% Rebate)

- From the 2<sup>nd</sup> quarter of 2019, total 8% of Rebate will be paid quarterly by OKBA HQ to member stores selling Nestle Ice Cream products exclusively.
- If you sell Nestle ice cream products with other brand ones, you don't have to submit this agreement.
- Please submit exclusive agreement form **with most recent invoice** by May 31. (Fax. 416-789-7834 / Attn. Nestle Ice Cream )
- The exclusive member list should be updated every year, so please send us exclusive agreement from even year though you submitted last year.

\* 2019년 2/4분기부터 Nestle Ice Cream을 독점취급하시는 회원에게 총 매출의 8% 리베이트를 분기별로 협회에서 직접 보내드립니다.

\* 타사 아이스크림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 독점 취급동의서(Exclusivity Agreement) 조건이 해당되지 않으므로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본 양식에 서명날인하여 **최근 인보이스**와 함께 5월 31일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fax. 416-789-7834 / email. [accounting@okba.net](mailto:accounting@okba.net) / Attn. Nestle Ice Cream 담당자)

**\* 동 계약서는 기존 체결 회원들에게도 해당되니 빠짐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his Agreement commences on April 01, 2019 for a period of twelve months, expiring on March 31, 2020**

At the end of the Agreement, member will sign a new agreement for an additional one-year period to be eligible for the Exclusivity Rebate. The terms of this Agreement are confidential and shall not be disclosed.

**I agree to carry Nestlé Ice Cream products exclusively within Nestlé's terms.**

\_\_\_\_\_  
Signature of OKBA Member

\_\_\_\_\_  
Name (Please Print)

\_\_\_\_\_  
Store Name

\_\_\_\_\_  
Address

\_\_\_\_\_  
Phone Number

\_\_\_\_\_  
Nestlé Customer Number

\_\_\_\_\_  
OKBA Membership Code

\_\_\_\_\_  
OKBA Chapter

\_\_\_\_\_  
Date



## ■ KBA 협동조합

169 The West Mall, Etobicoke  
 (협동조합 사무실) ----- (416) 789-7544  
 169-175 The West Mall, Etobicoke  
 (협동조합 웨스트몰지점) -----(416) 867-1444

## ■ 복권관련

AGCO (복권 판매 라이선스 관련) -----(416) 326-8700  
 (800) 522-2876  
 Fax (416) 326-5555  
 OLG -----(800) 387-0104

## ■ 음료

Coca Cola Bottling Company ----- (800) 241-2653  
 Pepsi Bottling Corp. -----(905) 568-7909  
 (800) 387-8400  
 Saint Jimmy's Coffee Service ----- (416) 250-9427

## ■ 우유

SAPUTO(Neilson Dairy) ----- (800) 663-4724

## ■ 스낵

Frito Lay Canada -----(905) 460-2414  
 South Cove ----- (905) 829-3666  
 Conagra Brands Canada ----- (416) 679-4200

## ■ 샌드위치

Classic group of companies ----- (866) 760-1926  
 A Biz Gourmet(Shirley 부사장) -----(866) 760-1926

## ■ Meat Jerky

Great Canadian Meat ----- (905) 666-9395  
 Conagra -----1- (888) 639-7868

## ■ 초코렛 / 캔디

Nestle Chocolate -----(800) 500-5634  
 Mars Canada Inc -----(800) 565-0147  
 Hershey Canada Inc. ----- (800) 268-1304  
 Mondelez(Cadbury/Christie) ----- (855) 535-5648  
 Wrigley Canada -----(416) 442-3298

## ■ 아이스크림

Nestle Ice Cream -----(905) 458-3600  
 Ontario (800) 500-5634

## ■ ATM / Debit

Touch Cash -----1- (866) 391-3950  
 Moneris Solutions ----- 1- (877) 789-5335  
 1Solution -----1- (888) 554-7355

## ■ 잡지

Metro 360 ----- (416) 285-2050  
 News Group ----- (905) 681-1113

## ■ 법률관련

변호사 이영동 -----(905) 272-4339  
 Best Defence (아담 유) ----- (416) 739-8887

## ■ 금융 / 회계 / 재정 / 보험

Bank of Canada(위조지폐 관련문의) - (888) 513-8212  
 신한은행 -----(416) 250-3550  
 외환은행 -----(416) 222-5200  
 이방록(회계사) -----(416) 221-2009  
 박효진(보험중개인)----- (416) 985-5287

## ■ 언론사

한국일보 -----(416) 787-1111  
 중앙일보 -----(416) 736-0736  
 Globe and Mail -----(800) 387-5400  
 National Post ----- (416) 383-2500  
 Toronto Star -----(416) 367-4500  
 Toronto Sun ----- (800) 668-0786

## ■ 장비 설치 수리

종합캐쉬레지스터 -----(416) 622-2255  
 프로캐쉬레지스터 -----(416) 804-4075  
 Cool Air Cleaning ----- (416) 224-0020  
 Hi Cool Tech -----(416) 909-7114

## ■ 광고 미디어 전문 대행 회사

Adapt Media ----- (416) 856-4466

## ■ 기타

Kocom -----(416) 769-3532  
 DSC Digital System ----- (416) 255-6549  
 David Health International ----- (647) 726-1010  
 허바헬스 ----- (416) 435-5754  
 365 Wholesale ----- (416) 931-9002  
 Butterfly Fashion ----- (416) 785-5999  
 The Best Inventory Service -----(905) 359-8560  
 원도매상 ----- (416) 661-6664  
 DavidWholeSale ----- (416) 419-3751  
 78 Trading ----- (437) 777-7878  
 Yeno Trading ----- (647) 967-6561  
 용역 회사 Tyson Lee ----- (647) 545-0922





## K.B.A. 협동조합

■ K.B.A. 운영 이사장 : 신영하 (Youngha Shin)  
K.B.A. 부이사장 : 심기호 (Kenny Shim)

■ K.B.A. 운영이사 (가나다 순)  
송명현 (Myeonghyeon Song)  
신재균 (Jae Gyun Shin)  
이두승 (Doo-Seung Lee)  
이만석 (Man Suk Lee)  
허창훈 (Chang-Hoon Huh)

■ K.B.A. 감사 (가나다 순)  
백사열 (Sah-Yeal Paik)  
장해민 (Hae Min Jang)

■ K.B.A. 총괄부장 : 권혁선 (Hyuk Sun Kwon)  
■ K.B.A. 사무장 : 배 줄리아 (Julia Bae)  
■ K.B.A. 협동조합 사무실  
Tel (416) 789 - 7544  
Fax (416) 789 - 5013  
■ K.B.A. 협동조합 매장  
Tel (416) 867 - 1444



## 조합 베이핑 제품 신용카드 2% 수수료 면제

### 일정액 이상 구입 시 배달 서비스도 구상

조합에서 취급하고 있는 전자담배에 한해 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신영하 조합운영이사장에 의하면 일반 제품 쇼핑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 지불할 때 구입액의 2%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최근 취급하기 시작한 인기 베이핑 제품 주울(JUUL)을 비롯해 모든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시행은 지난 4월 18일부터 시작했다.

아울러 이 제품군에 대해서는 조만간 배달 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GTA에 한해서 주문액이 100달러 이상일 경우 업소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전망이다. 기타 지역은 차후 진행할 예정이다. 배달은 5월 중 시행 계획이다.

한편, 베이핑 제품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다른 쇼핑 제품들과 구분해서 계산이 이루어지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않고 섞어서 계산 작업이 종료되면 뒤늦게 이를 구분해 면제를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 쇼핑객들은 전자담배제품과 타 제품을 구별해서 별도 계산을 하도록 조합 직원에게도 미리 말을 해줘야 서로 착오가 없다. ■



### STAGE 1



**BLU ASSORTMENT-PODS  
STARTER KIT**  
device, charging cable and  
two pods(tobacco & menthol)  
**소매마진 25%**

**SPECIAL OFFER  
\$17.99**

**BLU ASSORTMENT-PODS  
POD PACKS**  
available in both 24mg/ml  
and 48mg/ml NIC strength  
**\$12.99 (MSRP)**





Sincere Trading of KBA  
West Mall Branch

# April

## Special Sale

April 1 ~ 30



**Coca cola 2L**  
All Flavours Reg.\$1.49 **Spe.\$1.39**

**1.39**



**9.99**

**Mott's**  
Snapple Ice Tea 12/473ml  
All Flavours Reg.\$12.55 **Spe.\$9.99**



**2.79**

**4.09**

**Nestle Purina**  
Dog Chow 2kg Reg.\$5.09 **Spe.\$4.09**  
Puppy Chow 2kg Reg.\$5.09 **Spe.\$4.09**  
Friskies Wet Cat 24/156g All Flavour Reg.\$16.29 **Spe.\$13.60**  
Friskies Wet Cat 368g All Flavour Reg.\$1.25 **Spe.\$0.99**  
Beggin Strips Dog Treats 170g All Flavours Reg.\$3.15 **Spe.\$2.79**



**1.59**

**3.29**

**2.49**

**Smuckers DLM**  
PUP-peroni 75g All Flavours Reg.\$1.79 **Spe.\$1.59**  
PUP-peroni 158g All Flavours Reg.\$2.75 **Spe.\$2.45**  
Jerky Treats 170g All Flavours Reg.\$2.75 **Spe.\$2.49**  
Alley Cat 2kg Reg.\$3.69 **Spe.\$3.29**  
Meow Mix Original Choice 500g Reg.\$2.25 **Spe.\$1.89**  
Meow Mix Original Choice 2kg Reg.\$6.49 **Spe.\$5.39**  
Milkbone 113g All Flavours Reg.\$1.85 **Spe.\$1.59**



**Mondelez**

Maynards 170 - 185g All Flavours  
Reg.\$1.99 **Spe.\$1.79**  
Maynards Singles 18/44-64g All Flavours  
Reg.\$16.89 **Spe.\$15.89**  
Oreo Thins 170g All Flavours  
Reg.\$3.25 **Spe.\$2.99**



**Vidal Candy 6<sup>49</sup>**  
1.2kg All Flavours  
Reg.\$7.49 **Spe.\$6.49**



**Kelloggs 1<sup>69</sup>**  
Pringles 148g - 156g All Flavours  
Reg.\$2.39 **Spe.\$1.69**



**C.B.Powell**

Blue Diamond 170g All Flavours  
Reg.\$6.89 **Spe.\$4.19**  
Blue Diamond 12/43g All Flavours  
Reg.\$21.49 **Spe.\$13.99**

**13<sup>99</sup>**  
**4<sup>19</sup>**



**5<sup>59</sup>**



**Clif**  
Clif Bar 68g All Flavours Reg.14.39 **Spe.\$12.89**  
Clif Builders 68g All Flavours Reg.16.69 **Spe.\$15.19**  
Clif Whey Bars 58g All Flavours Reg.7.05 **Spe.\$5.59**



**12<sup>99</sup>**  
**11<sup>49</sup>**  
**Regal**  
Baby Bottle Gummy Blast Reg.\$14.49 **Spe.\$12.99**  
Double Bubble Tub Reg.\$15.69 **Spe.\$13.79**  
McCormick's Real Choc.  
Wrapped Marshmallow Brooms  
Reg.\$13.19 **Spe.\$11.49**



**Weetabix 1<sup>99</sup>**  
Whole Grain Cereal 400g  
Reg.\$3.99 **Spe.\$1.99**

**1<sup>99</sup>**



**Brand Strategy**

Cretors 184 - 227g All Flavours Reg.\$2.79 **Spe.\$2.59**  
Popcorners 142g All Flavours Reg.\$1.99 **Spe.\$1.79**  
Blue Diamond Almond Milk 946ml All Flavours Reg.\$2.25 **Spe.\$1.99**

**1<sup>79</sup>**



**1<sup>99</sup>**  
**General Mills**  
Honey Nut Cheerios 330g  
Reg.\$3.29 **Spe.\$1.99**



**Maple Syrup 4<sup>99</sup>**  
Camp 100% pure 250ml  
Reg.\$6.99 **Spe.\$4.99**



**1<sup>25</sup>**  
**Dare**  
Breaktime 325g All Flavours  
Reg.\$1.75 **Spe.\$1.25**  
Ultimate Cookies 290-300g All Flavours  
Reg.\$2.79 **Spe.\$2.35**



**Bertolli**

Olive Oil 250ml Classico & Extra Light  
Reg.\$3.55 **Spe.\$3.19**  
Olive Oil 250ml Extra Virgin  
Reg.\$3.75 **Spe.\$3.29**  
Olive Oil 500ml Classico & Extra Light  
Reg.\$5.25 **Spe.\$4.95**  
Olive Oil 500ml Extra Virgin  
Reg.\$5.55 **Spe.\$4.95**



**18<sup>99</sup>**  
**Redpath**  
Sugar 10/2kg  
Reg.\$23.99 **Spe.\$18.99**



**0<sup>89</sup>**  
**Kingsford's Cornstarch**  
454g Reg.\$1.49 **Spe.\$0.89**



### Melitta

Coffee Filter #2 Reg.\$2.05 **Spe.\$1.85**  
 Coffee Filter #4 Reg.\$2.05 **Spe.\$1.85**  
 Coffee Filter #6 Reg.\$2.05 **Spe.\$1.85**  
 Coffee Filter Filter Basket 100's  
 Reg.\$1.89 **Spe.\$1.69**  
 Melitta Coffee 250-300g All Flavours  
 Reg.\$5.65 **Spe.\$4.55**



### Ferrero

Tic Tac Mixers 12/49g  
 Watermelon Lime Reg.\$7.79 **Spe.\$7.09**  
 Bueno Minis t18 Bag 97g Reg.\$2.35 **Spe.\$2.15**  
 Bueno Minis t27 Bag 145g Reg.\$3.65 **Spe.\$3.25**



### Clover Leaf

Brunswick Seafood Snacks 92g - 100g All Flavours Reg.\$1.55 **Spe.\$1.25**  
 Brunswick Sardines 106g All Flavours Reg.\$1.35 **Spe.\$1.19**  
 Value Added Tuna 85g All Flavours Reg.\$1.65 **Spe.\$1.45**  
 Skipjack Tuna 170g All Kinds Reg.\$1.99 **Spe.\$1.45**  
 Premium light Yellowfin Tuna 142g All Kinds Reg.\$2.19 **Spe.\$1.69**



### Conagra

Hunts Pasta Sauce 680ml All Flavours Reg.\$2.05 **Spe.\$1.79**  
 VH Sauces 341ml All Flavours Reg.\$2.79 **Spe.\$2.35**  
 BIGS Sunflower Seeds 140g All Flavours Reg.\$1.55 **Spe.\$1.35**



### Heinz

Beans 398ml All Flavours Reg.\$1.79 **Spe.\$1.09**



### Campbells

Red & White Soup 284ml All Flavours Reg.\$1.69 **Spe.\$1.45**  
 Chunky Soup 540ml All Flavours Reg.\$2.99 **Spe.\$2.25**  
 Chili 425g All Flavours Reg.\$2.55 **Spe.\$2.29**  
 Franco American Gravy 284ml All Flavours Reg.\$1.19 **Spe.\$0.95**



### McCain

French Fries 900g Reg.\$2.69 **Spe.\$1.99**  
 Xtra Crispy Fries 650g Reg.3.09 **Spe.\$2.39**  
 Premium Super Fries 650g Reg.\$3.09 **Spe.\$2.39**  
 Xtra Crisp Seasoned Fries 650g Reg.3.09 **Spe.\$2.39**  
 Deep'n Delicious Cakes 510g Reg.4.79 **Spe.\$3.89**  
 Deep'n Delicious Fruit Pies 680g Reg.4.79 **Spe.\$3.89**  
 Delicious Cream Pies 400g Reg.4.79 **Spe.\$3.89**  
 Pizza Pocket 3pack Reg.3.49 **Spe.\$2.39**



### Sara Lee

Cheese cake 538g Strawberry & Cherry Reg.\$4.99 **Spe.\$3.59**  
 Oven fresh Pies 1.04kg All Flavours Reg.\$5.29 **Spe.\$3.59**  
 Pound Cake 304g Reg.\$3.59 **Spe.\$2.79**  
 Cream Pies 55g - 765g All Flavours Reg.\$6.99 **Spe.\$4.69**



**15<sup>19</sup>**



**Tampax**

Regular 10's Reg.\$16.89 **Spe.\$15.19**  
 Super 10's Reg.\$16.89 **Spe.\$15.19**  
 Super Plus 10's Reg.\$16.89 **Spe.\$15.19**

**19<sup>49</sup>**



**17<sup>99</sup>**



**Cascades**

April Soft Bathroom Tissue 4's Reg.\$21.49 **Spe.\$19.49**  
 Fiesta Paper Towel 2'S Reg.\$19.99 **Spe.\$17.99**

**Always**

- Always Ultra Slender w/ Flexi-wings 18's 4.69 **3.95**
- Always Ultra Regular Thin w/ Flexi Wings 10's 3.09 **2.95**
- Always Ultra Overnight w Flexi Wings 14's 4.69 **3.95**
- Always Ultra Regular w/ Flexi Wings 18's 4.69 **3.95**
- Always Thin Ultra Long w/ Flexi wings 16's 4.69 **3.95**
- Always Ultra Regular 22's 4.69 **3.95**
- Always Thin Maxi Regular w/Flexi wings 10's 3.09 **2.95**
- Always Maxi Regular w/Flexi wings 18's 4.69 **3.95**
- Always Maxi Overnight 14's 4.69 **3.95**
- Always Ultra Thin Long w/ Flexi wings 14's 4.69 **3.95**
- Always Ultra Thin Reg 16's 4.69 **3.95**
- Always Ultra Thin Long 20's 4.69 **3.95**
- ALWAYS RADIANT INFINITY REGULAR PADS**
- Flexi Wings 12pk 4.69 **3.95**
- Flexi Wings 16pk 4.69 **3.95**
- Reg 64pk 4.69 **3.95**
- ALWAYS THIN/MINCE FLEXI-STYLE**
- Pantliners 60's Unscented 60pk 4.69 **4.09**

**42<sup>99</sup>**



**Bic**

Regular Large Reg.\$50.99 **Spe.\$42.99**  
 Mini Reg.\$44.99 **Spe.\$38.99**

**38<sup>99</sup>**

**124<sup>99</sup>**  
**Cricket**  
 Lighters Pre Pack



**West Mall** 169-175 The West Mall  
 T.(416)867-1444 F.(416)789-5013

**Business Hours**

- Mon. 06:30 - 17:00
- Tue. 06:30 - 17:00
- Wed. 06:30 - 17:00
- Thur. 06:30 - 17:00
- Fri. 06:30 - 17:00
- Sat. 06:30 - 16:00
- Sun. 11:00 - 17:00**



Offer valid for March/April 2019

# NEW for 2019 Buy more ... get more!

Buy \$325 & get 1 **FREE CASE**  
of Drumstick Rolo valued  
at **\$40.08.**



Buy \$450 & get 1 **FREE CASE**  
of both Drumstick Rolo **AND**  
Drumstick Mocha Cookie Crunch  
valued at **\$87.12**

Buy \$550 & get 1 **FREE CASE**  
of each of Drumstick Rolo &  
Drumstick Mocha Cookie  
Crunch **AND** Maynard's Fuzzy  
Peach and Swedish Berry value  
at **\$113.52**



Please contact Nestlé for full details. Valid for one-time use only. Not valid in combination with any other offers or promotions. Offer expire April 30, 2019. While quantities last.

\*\$ value before taxes on purchases of Nestlé Single Serve Ice Cream products.

MAYNARDS AND SWEEDISH BERRIES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MONDELÉZ INTERNATIONAL GROUP, USED UNDER LICENSE BY: NESTLÉ CANADA INC., NORTH YORK, ON M2N 6S8. ©2019 NESTLÉ. ALL OTHER TRADEMARKS ARE OWNED BY SOCIÉTÉ DES PRODUITS NESTLÉ S.A., VEVEY, SWITZERLAND AND USED UNDER LICENCE. ©2019 NESTLÉ.



# 2019 4.28~5.25

Take Home



Lay's XL 2/\$6<sup>50</sup>

Single Serve



Lay's / Smartfood 2/\$3

Convenience Food



Spitz 2/\$4

Frito Lay Canada에서는 2019년 4월 28일부터 2019년 5월 25일까지 클럽 골드 회원, 플래티넘 회원, 다이아몬드 회원에게 스페셜을 실시하오니 방문하는 판매 담당자 또는 드라이버에게 문의하세요. 4주 한정기간 동안 프로모션이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스페셜 상품들은 OKBA 프로그램 스토어에도 적용됩니다.



- 최소 주문량 \$50
- 다양한 제품 오더 가능 (Single Serve, Take Home, Convenience Food, etc)
- 직접 재고 관리 가능
- 필요할 때마다 주문 가능 (무료 배달/주문 후 이틀안에 배달 완료)
- 충분한 유효기간 (창고에서 직접 포장)
- Single Serve는 Snack to you를 통해 주문 가능합니다.

Online at [snackstoyoucanada.ca](http://snackstoyoucanada.ca) or Phone 1-866-404-8881

Happiness is simple